

3

에코힐링 기업 주식회사 선양사례

김규식

(주식회사 선양 기획조정실장)



# Creative & Good Company

창의적이면서 공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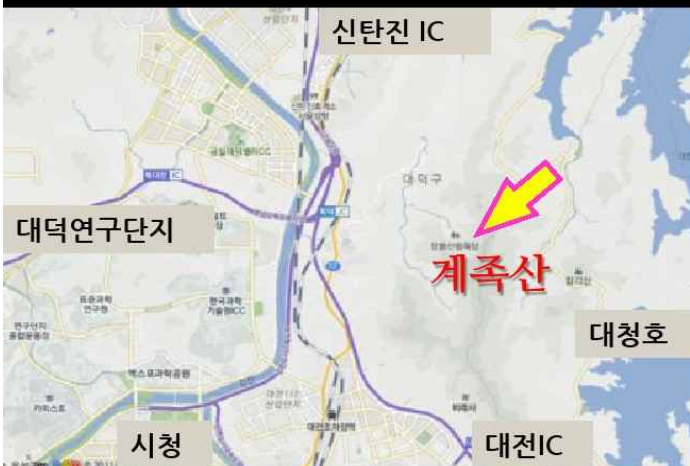
에코힐링 기업 - 선양

기업광고



## 작은 배려로 시작된 큰 나눔... 계족산 황톳길 14.5km

### 계족산



- 대전광역시 동북쪽 대청호 사이 위치
- 대전역, 신탄진 IC에서 약 25분
- 높이 해발 423m
- 200~300m 중턱 약 100리(40km)에 이르는 폭 5m의 숲길

## 스토리 가득한 계족산 항토길 14.5km



5

2006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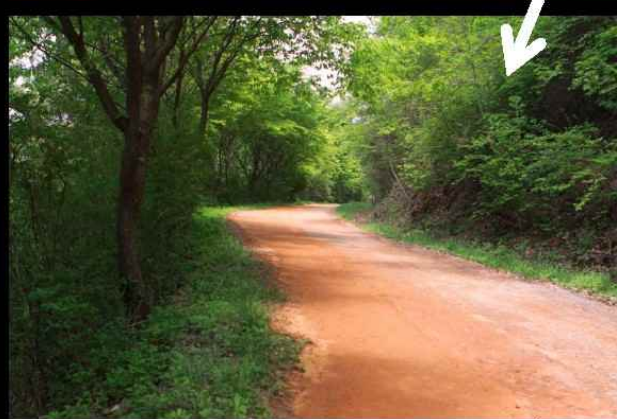
하이힐에서 시작된 스토리



6



2006년부터  
산에 흙을 깔기 시작



**촉감**

맨살로 느끼는 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









##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의 힘... 에코힐링 프로그램



Since 2006  
**매바축제**  
데족산 **2** **2** **2**  
Barefoot Fe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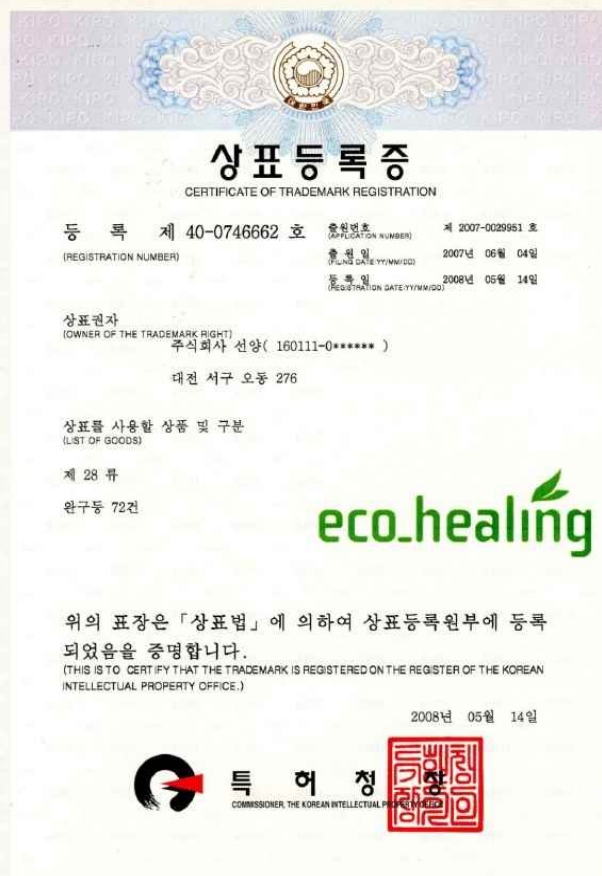


# 에코힐링

eco.healing

‘환경’을 뜻하는 ‘ecology’와 ‘치유’를 뜻하는 ‘healing’을 결합한 ‘eco\_healing’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는 ㈜선양의 기업철학입니다.

13



14



맨발로 달리면서 클래식 연주 들으며... 비보이 공연도 보고... 결승선이 다가오니 꽃길이네

## 山中 마사이 마라톤

대전 계곡산에서 2000여명 참가  
마사토 1000t 뿌려 코스 만들어

어둠나무, 소나무 등이 하늘을 가릴 만큼 짙은 숲 속. 맨발로 숲 길을 달린다 보니 어디선가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린다. 마라톤 대회에 댄스 클래식 음악이? 참가자들은 잠시 발의 숲속 연주와의 감동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다음엔 사람들이 응원단이 나타나고, 결승선이 가까워지자 걸 췌면 꽃이 가득했다. 결승선 100m 앞, 폭 5m의 꽃 길 앞으로 걸게 놓여진 자원봉사자들이 꽃을 흩날리며 완주를 축하했다.



"세상에 이런 마라톤대회도 있나?" 참가자가 아까웠다"고 말했다.

코스 30회 이상 완주한 마라톤 마

**조 회장은 이 대회를  
'자연을 통한 치유(에코힐링 Eco-healing)'라고  
정의했다.**

(마)마라톤은 가장 큰 힘이 2000년 다  
루 앞가와 옥축한 연못의 감촉이 너무  
좋았다"며 "나 혼자 어떻게 좋은 것들

많은 입자들과 기적 600여명 이 대회  
연과 자원봉사를 했다. 대회를 만들고  
운영을 직접 지휘한 조웅래(47) 회장은

를 할라라는 중점을 기술했다.  
주 의장은 이 대회를 '자연속 통한 치  
유(에코 힐링-Eco-healing)'라고 정의

했다. 맨발로 숲속 흙길을 달린 뒤 자연과  
접촉과 효과를 만끽하며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대회 전날인 12일에는 600여명을  
초청해 맨발 달리기와 장영을 알리는 세  
마니도 열었다. 쾌적한 대회 분위기를 위  
해 참가자도 2000원으로 제한하고 참가  
비는 5000원만 받았다. "젊은이들이 건강  
해야 한다"며 20세 미만 44명에게는는  
참가비도 받지 않았다. 조 회장은 "달리기  
도 건강에 좋은데 맨발 달리는게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자연 사하여 봉사하는 마  
음으로 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마사이마라톤 참가자들이 흥겹게 앞서 완주를 다짐하며 페이스를 되치고 있다(사진 위). 주  
자들이 달리는 코스 중간에서 십자목이 길목으로 음악 연주로 참가자들의 힘을 북돋웠다.  
(우)산양 재능

### 萬物相

아프리카 동북부 케냐와 탄자니아에 사는 마  
사이어족은 많이 걷고 잘 걷는다. 마사이어족 어린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맨발로 5km를 걸어  
가 물을 길어온다. 여자들은 장을 보러 왕복  
20km씩 걷고, 남자들은 소와 양을 돌보느라  
종일 초원을 쏘다닌다. 마사  
이족들은 하루 평균 3만보를  
걸는다. 하루 5400보를 걷는  
한국인의 6배 가깝다. 걷기가  
곧 생활인 셈이다. ▶마사이  
족은 이렇게 많이 걸어도 별  
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달걀을 푼듯 걷는 방법'이  
비결이다. '발뒤꿈치→발 바  
깡 측면→새끼발가락 부근→  
엄지발가락 부근→엄지발가  
락' 순으로 땅에 닿게 걷는  
것이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  
운 채, 발바닥 아래 달걀이 있다 치고,  
이 깨지지 않도록 굴리는 기분으로 걷  
는 중의 압력이 분산되고 발바닥에 끌고  
이 가래져 힘들지 않다고 한다. ▶스위  
공학자 칼 플러는 요령으로 고생하다 맨발로  
부드러운 땅을 걸을 때 허리가 덜 아프다는 사  
실에 착안해 신발을 개발했다. 바닥이 평평한  
여느 신발과 달리 땅에 닿는 발바닥 중앙부분  
이 둥글게 튀어나온 반월형이다. 이 신발을 신

### 마사이 마라톤



### "자연을 통한 치유"

으면 마사이 방식처럼 발을 굴러듯 걷게 된다.  
그래서 'MBT(마사이 맨발기술)'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작 이 기술의 탄생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이다. 플러는 1980년대 한국 유학  
중 농길을 걷다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  
그해 대전 계곡산 산림욕장에서 '마사이 마라  
톤' 대회가 열렸다. 맨발로 흙길을 달린다고  
해서 불인 이름이다. 소주회사 선양이 두 번째  
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가해 맨발로 숲속 흙  
길 13km를 달리며 발바닥 지  
압과 산양을 동시에 누렸  
다. 대회를 창안한 조웅래 회  
장은 참가자를 30회 넘게 완  
주한 마라톤 마니아로, 마사  
이 마라톤을 '자연을 통한 치  
유'라고 했다. ▶한국인의 하  
루 평균 걸음을 조사해보니  
전일주부가 3000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회사원이

람보다 빠르게 뛰는 무무 배달원이 더 건강할  
수밖에 없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맨발에 흙 길은 아니어도 흙길이나 동네 골  
목길 걷기라도 당장 시작해볼 일이다.

강인선 논설위원 insun@chosun.com



17

## 세계 4개 언어로 15개국에 소개

- 한국관광공사 MICE상품으로  
15개 국 27개 해외지사에서 배포



**Jagalchi Festival**  
Jagalchi Festival in Busan is the largest seafood festival in Korea. It is held annually in the Jagalchi Market area, featuring a variety of seafood products and traditional Korean food. The festival also includes a large outdoor stage for music and dance performances.



**Seogwipo Chilsimni Festival**  
The Festival has been inspired by the dream of being forever young. Chilsimni refers to an ideal world that represents the beauty and mystery of Seogwipo. Major events of the Festival are the food festival and gallery, the pack making with natural extracts (seaweed, ginseng, etc.), the artistic make-up show (face-painting, henna tattoo, nail art, etc.) and the spa experience for being young.

**Seongsan Sunrise Festival**  
Launched in 1994, the Seongsan Sunrise Festival is held on top of Jeju Island's Seongsan Ilchubong or "Sunrise Peak." The site is the most famous place for seeing the magnificent sunrise on Jeju Island and attracts a large crowd of tourist throughout the year. Against the backdrop of the majestic Seongsan Ilchubong, a World Heritage designated by UNESCO, the Festival offers a refreshing moment for tourists who come to see the first sunrise to reflect on the past year and make wishes for the coming year. A variety of festival programs are provided for visitors to enjoy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arts.

**Mt. Gyejoksan Barefoot Festa**  
The eco-friendly Mt. Gyejoksan tourist zone in Daejeon is a unique place which requires visitors to forget shoes and go to a soft red clay trail. Once the President Michel of the Republic of Seychelles in the Indian Ocean came to the town in 2009, he walked barefoot through the beautiful forest of the Mountain. The Barefoot Festa combines people, Mother Nature, culture and arts in a harmonious way. You can travel barefoot through the thick woods along with the fantastic art and music performances, which gives you a healing moment. Also provided is Eco-Healing Sunyang International Installation Art Festival.



## 체험여행의 명소가 된 계족산



-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5월에 꼭 가봐야 할 명소' 선정
- 여행 전문기자들이 뽑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 선정
- G마켓 '지방자치단체 e-Marketing Fair' 여행부분 대상 수상

19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저절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 다양한 모임, 소통의 공간으로 인기



회의, 워크숍, 예배, 단합대회 등 각종 모임장소로 인기



21



도시 곳곳으로 퍼진 황톳길 맨발걷기 문화







치유와 소통을 나누는...  
에코페라 공연단, 그리고  
계족산 숲속음악회





## 2007년부터 꾸준히 해 온 찾아가는 음악회 - 연간 80회 공연



교도소, 군부대, 고등학교, 문화소외계층 등



고3 & 학부모, 선생님 대상

클래식공연과 함께 하는 '힐링 특강' 재능기부

2012년 11~12월, 15개교 5,200명 대상 시행





# 맨발, 클래식, 문학의 어울림



**(fun fun) '변변한' 클래식과 함께하는 문학인과의 만남**

9.23(일) 16:00~18:00 소설가와 함께 <만다린> 김성동 작가  
10.14(일) 16:00~18:00 시인과 함께 <고요의 초대> 조정권 시인

장소: 숲속음악회 공연장      주관: 앵코힐링 기업 - 선양, (사)백복스



## BreakNews

영동한 발상의 '황톳길' 와이키키만큼 유명  
<한지 르포(주)선양 조동래 회장 영동발상 조성한 '계족산 황톳길'>

그간의 기업들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문화를 만들어가는 특이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이 만든 문화의 길, 대전시 계족산 장동산림욕장이 그곳이다. 필자는 지난 8월 26 일 계족산 황톳길 맨발 걷기에 나섰다. 계족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하는 산길이다.

산길을 따라 주욱 걸어보면, 길 전체의 4분의 1 가량이 황토가 깔려 있다. 등산객들은 맨발로 그 황톳길을 걷는다. 마침 전날 비가 와서 황톳길은 전득전득 했고, 물은 황토반죽이 발가락 사이로 묻어나왔다. 필자의 고향은 농촌마을이라 어릴 적 맨발로 들관을 거닐어 본 적이 많다. 그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맨발로 산길을 걸어볼 수 있었다. 맨발, 원시로 돌아온 것이다.

계족산은 개인 소유의 산이 아니다. 국가 소유의 산이다. 그 산에 난 소방용 도로가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명소로 거듭나기까지는 보이지 않은, 아이디어의 주체와 실행회사가 있다. 소주를 생산하는 (주)선양이 주체기업이다. 이 회사의 조동래 회장이 황톳길을 조성,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계족산을 찾는 등산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입구 도로에 걸려

## 경향신문

맨발로 황톳길을 걸어보며

낯은 목소리로  
한편씩  
조각

대선 재검토를 다짐했다. 계족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한다. 계족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한다. 계족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한다.

**길은 시멘트를 벗고, 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맨발로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느끼며 통성명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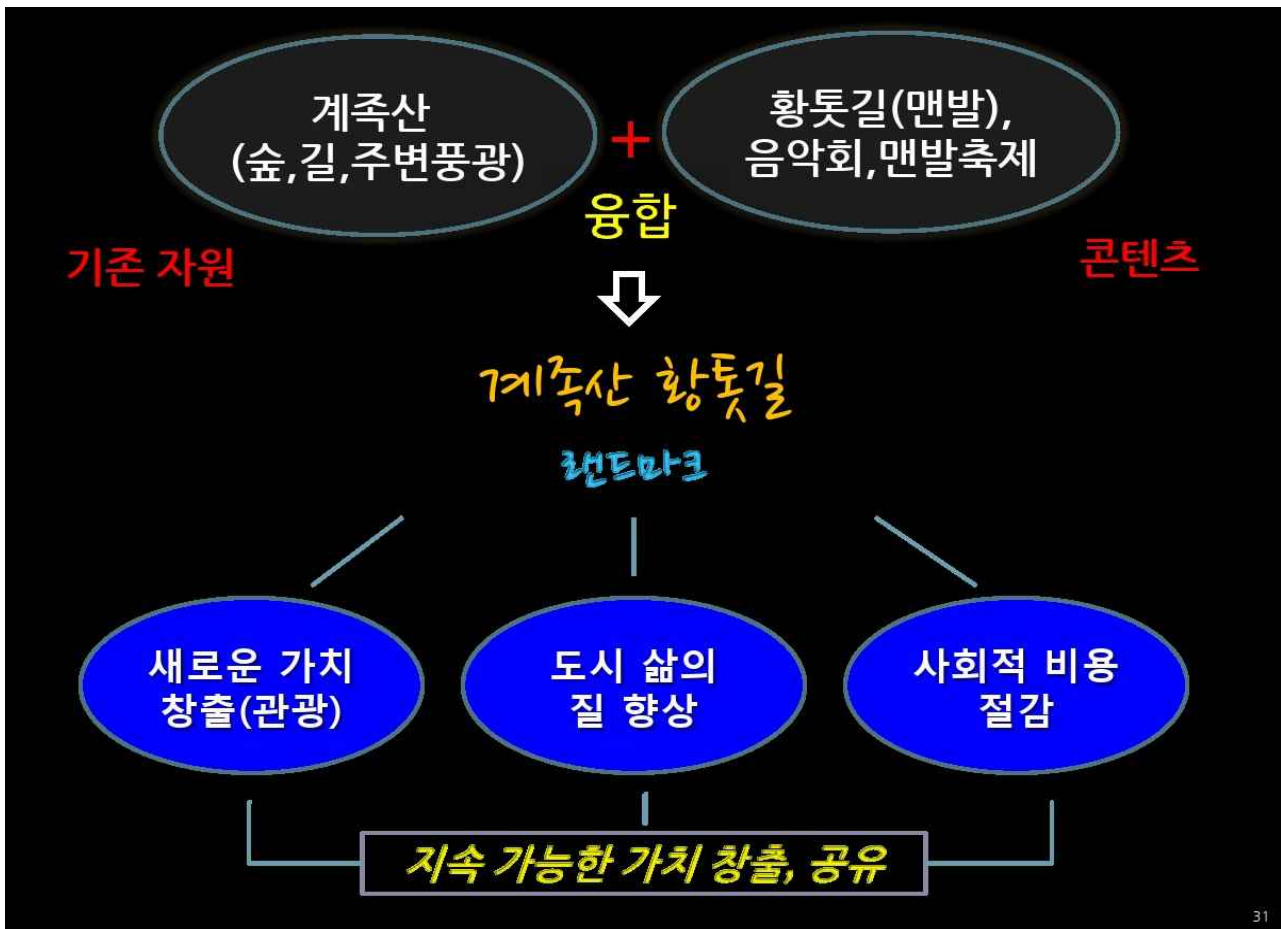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조...  
Creating Shared Value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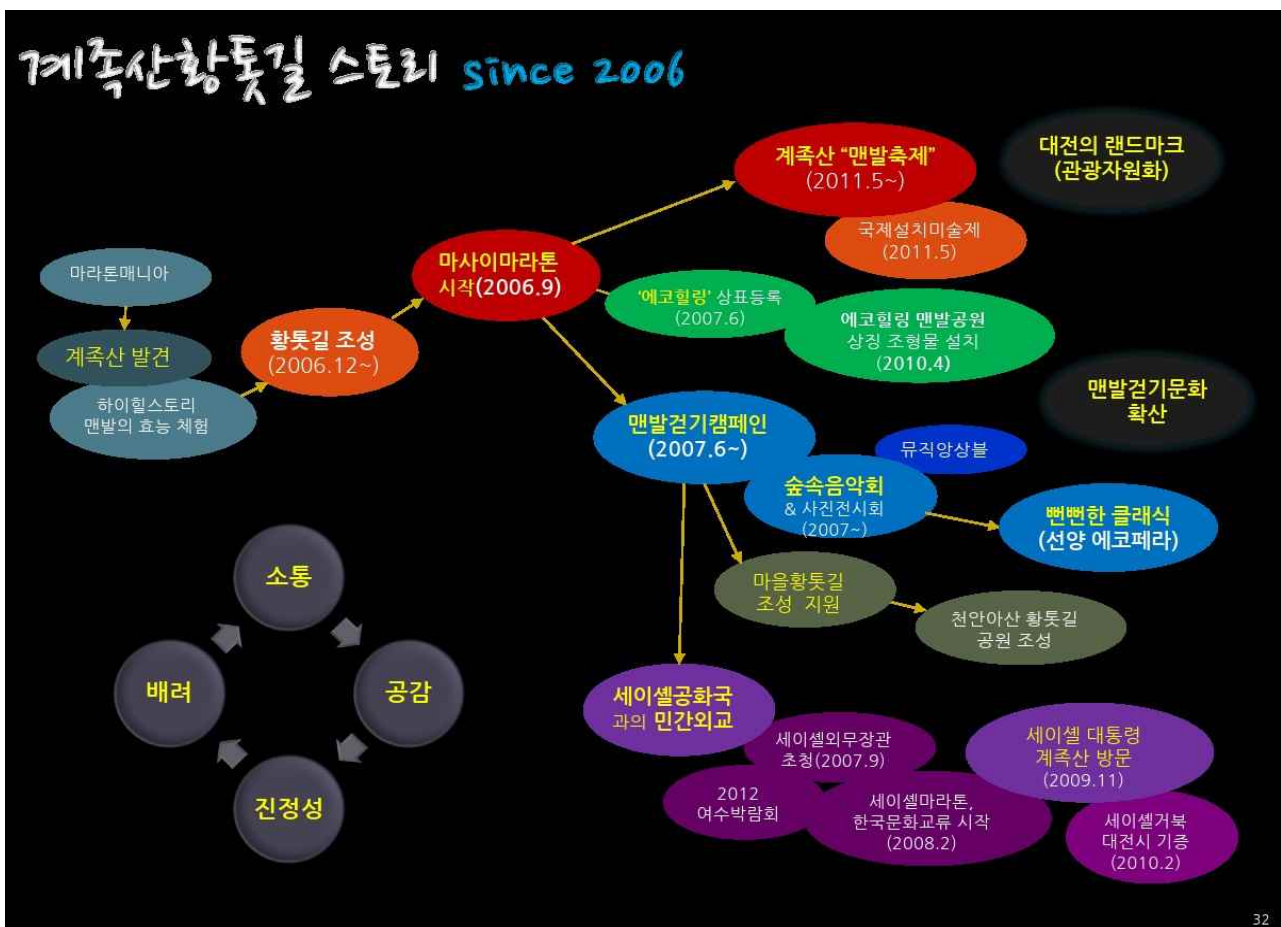
「 2012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대전 」 대상 수상작

“계족산 황톳길” (2012.11.25, 민영주 작가)





31



32

‘소주회사가 아니라  
콘텐츠 회사인 것 같다’

‘엄청나게 큰 회사인  
줄 알았다’

‘좋은 일 많이 하는  
회사다’

33

## J 중앙일보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Business & money

B2 경제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Business & money

### “황톳길 만드니 소주가 더 팔려” ... 회장님들에게 강연한 회장님



조용래 회장은  
1959년 경남 함안  
86년 경북대 전  
89-92년 삼성전사

이건산업 박영주 회장은  
“요즘 반 기업 정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기업이 많다”며  
“계산기가 아닌 가슴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라고 했다.

조용래 선왕 회장의 '역발상'  
“주변 마음 얻는 게 먼저라 생각-  
길이 뻗소 되니 고맙다고 소주 사”

“소주 회사가 북부지방에 매장을 연다니 궁금하십니까?”  
34일 오전 서울 용문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조용래 회장 특강에 참석한 이진우(44)씨(왼쪽)는 “회장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주변 마음 얻는 게 먼저라 생각’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 회장은 2009년 대선시 장을 개국한 이래 14.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힘’을 이끌었다. “회장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주변 마음 얻는 게 먼저라 생각’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은 ‘역발상’을 통해 현대에 불우한 정신을 되  
어왔다. 그는 “지금까지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회사 창업을 하다 보면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큰 회사도 팔리지 않을 수 있는 지  
산업을 만들었다”고 했다.

조 회장은 1993년 500만 원으로 무상으로  
출자 1천만 원에 “542”를 창업했다. 현재  
700-5420로 전화를 걸면 “회장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주변 마음 얻는  
게 먼저라 생각’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2004년 총회 100%에서 전무위원이 3개 팀  
이었던 선출제도가 100%로 바뀌었다. 조 회장  
은 300여명에 달하는 임원을 만수무강한 그 뒤  
한 단 10명에 줄였다.

“차라리 하는 게 고집에 연고도 있는 지어,  
말기 전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회사들 거를  
수 있겠냐는 말에 정말 감동 깊어졌습니다.”  
조 회장은 “회장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주변 마음 얻는 게 먼저라 생각’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연 중엔 박영주 회장이 ‘박영주’라고 해서  
를 보여줬다. 박영주 회장은 “회장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주변 마음 얻는  
게 먼저라 생각’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35

규모보다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

작지만 강한 기업

CREATIVE & GOOD COMPANY

창의적이면서 공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

36

# 충남기업 사회공헌 포럼 발제 의견

김규식 (주식회사 선양 기획조정실장)

선양은 지역사회 환원활동의 일환으로 기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것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기에 특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선양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인 CSV(creating shared value)활동은 많은 기업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CSR활동을 넘어 투자의 개념으로 기업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CSV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바람직한 흐름이라는 의견입니다.

선양의 CSV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계족산 황톳길 조성과 문화예술봉사 활동을 통한 상생활동이 있습니다. 8년 전부터 계족산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맨발걷기캠페인, 맨발 축제, 숲속음악회 등을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건강과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지속적인 에코힐링실천으로 진정성을 느낀 시민들이충성고객으로발전하면서기업입장에서도혜택을보는상생활동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다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CSV활동을 통해 사회와 기업이 함께 공생하는 충남이 되길 희망합니다.